

# ‘넥스트 모빌리티 축제’ 부산국제모터쇼 오늘 팡파르

8개국 120개사 참여 신차 선봬  
아이오닉6, 공력성능 극대화 적용  
컨셉트 EV9, E-GMP기반 모델  
제네시스, 미래전기차 디자인 제시  
시승 체험·맥주축제 등 행사 풍성

코로나19로 중단됐던 부산국제모터쇼가 4년 만에 ‘넥스트 모빌리티, 축제가 되다(Next Mobility, A Celebration)’를 주제로 15일 정식 개막한다.

15일부터 24일까지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에서 열리는 2022 부산국제모터쇼에는 총 8개국 120개사가 참여해 다양한 신차 및 관련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이다. 완성차 브랜드로는 현대차 그룹 산하 3개 브랜드인 현대차, 기아, 제네시스, BMW그룹의 BMW, 미니, 롤스로이스 3개 브랜드 등 총 6개 브랜드가 참여한다.

### ◇현대자동차 ‘아이오닉6’

현대차는 ‘지속가능한 모빌리티 라이프의 경험’을 주제로 한 전시 부스에서 ‘아이오닉6’ 최초 공개와 함께 구체적인 제원과 세부 사양을 선보일 예정이다. 완성차 브랜드로는 현대차 그룹 산하 3개 브랜드인 현대차, 기아, 제네시스, BMW그룹의 BMW, 미니, 롤스로이스 3개 브랜드 등 총 6개 브랜드가 참여한다.

‘아이오닉6’는 현대차의 전기차 전용 플랫폼에서 출시되는 첫 번째 세단으로, 바람의 저항을 최소화한 부드러운 유선형의 디자인과 더불어 공력성능 극대화를 위한 기술들을 대거 적용해 현대차에서 가장 뛰어난 공기저항계수 0.21을 달성하기도 했다.



2022 부산 국제모터쇼에 마련된 기아 전시관 전경. /기아 제공



2022 부산 국제모터쇼에 마련된 제네시스 전시관 전경. /현대차 제공



현대자동차 ‘아이오닉6’



더 기아 컨셉트 EV9.



제네시스 ‘엑스 스피디움 쿠페’

이외에도 현대차는 지난해 11월 미국 LA 오토쇼에서 처음 공개한 대형 전기 SUV 컨셉트카 ‘세븐’과 수소트럭 ‘엑시언트’ 등 친환경 차량을 소개할 계획이다. 양산차 중에서는 경차 ‘캐스퍼’, ‘캐스퍼 밴’과 미니밴 ‘스타리아 라운지 리무진’을 선보인다.

◇기아 ‘컨셉트 EV9’·‘더 뉴 셀토스’  
기아는 ‘기술·디자인·고객 경험’을 주제로

전시관을 구성, 각 주제에 맞는 차량과 조형물 등을 전시해 ‘진보하는 기아의 모빌리티’를 알리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더 기아 컨셉트 EV9(이하 컨셉트 EV9)’와 ‘더 뉴 셀토스’도 첫 선을 보인다. 컨셉트 EV9는 E-GMP를 기반으로 하는 기아의 두 번째 전용 전기차 모델을 예고하는 컨셉트 모델이며, 더 뉴 셀토스는 2019년 출시 이후 3년 만에 선보이는 셀토스의 상품성 개선 모델

로 두 모델 모두 기아의 디자인 철학 ‘오피짓 유나이티드’가 반영됐다. 이외에도 첫 순수전기차 EV6와 ‘니로 플러스’, ‘니로 EV’ 등 친환경 차량과 ‘K8 하이브리드’, ‘스포티지 HEV’, ‘레이1인승밴’ 등 양산차도 선보인다.

◇제네시스 ‘제네시스 엑스 스피디움 쿠페’  
제네시스는 컨셉트카로 지난 4월 뉴욕 제네시스 하우스에서 최초로 선보인 ‘제네시스 엑스 스피디움 쿠페’를 국내 최초 공개한다.

제네시스가 예상하는 미래 전기차 디자인 방향을 공유하고자 제작된 이 차량은 제네시스의 대표적인 디자인 요소인 ‘두 줄’과 ‘윙 페이스’가 전동화 시대에 맞춰 진화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최근에 출시해 역동적인 주행 성능으로 인기가 중인 스포츠 세단 G70 슈팅 브레이크와 함께 GV60, GV70 EV, G80 EV 등 신차 시승 경험도 제공한다.

한편 4년 만에 열리는 행사인만큼 체험 프로그램도 늘리는 등 다양한 부대행사도 열린다. 모터쇼 조직위 측은 “온라인 자동차 경주 대회나 드래그별 신차 시승 체험, 오프로드 체험 시승, 전기오토바이 시승, 극소형 전기차 시승 등 다양한 시승 프로그램과 관람객들의 오락을 위한 맥주축제도 대회 기간 내내 야외광장에서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오지현 기자

## 현대자동차 ‘2023 투싼’ 출시

### 차음유리·스티어링 휠 신규 적용

현대자동차가 상품 경쟁력을 높인 준중형 SUV ‘2023 투싼’을 출시하고 본격적인 판매에 돌입했다.

새롭게 출시된 ‘2023 투싼’은 연식 변경 모델로, 현대차는 고객 선호 사양을 새롭게 적용하고 전체 트림에 신규 사양인 지능형 속도 제한 보조와 진동경고 스티어링 휠을 기본 탑재해

편의성을 높였다.

지능형 속도 제한 보조는 도로 표지판 또는 내비게이션 정보를 활용해 속도 위반 및 제한 속도를 준수할 수 있도록 하며, 진동경고 스티어링 휠은 차량이 차선을 벗어나 주행하면 스티어링 휠 진동을 통해 운전자가 알아챌 수 있도록 경고한다.

또한 현대차는 투싼의 엔트리 트림인 모던에 ▲8인치 오디오 ▲후방 모니터 ▲버튼시동 및

스마트 키를, 인기 트림인 프리미엄에 ▲10.25인치 내비게이션 ▲블루링크 ▲오토 디포그 ▲레인센서 ▲듀얼 풀오토 에어컨 등을 기본화했다. 최상위 트림 인스퍼레이션에는 1열 이중접합 차음유리, LED 실내등을 기본으로 적용했으며, 터널 연동 자동제어 기능을 개선해 고객 만족도를 높였다. 특히 1열 이중접합 차음유리는 투싼에는 처음 적용된 사양으로, 운전 중 외부 소음을 줄여 실내 집중성을 개선한다. 터널 연동 자동제어 기능은 차량이 터널을 벗어나면 공조기 뿐만 아니라 창문도 기존 상태로 자동 복귀시켜주는 기능이다. /오지현 기자

## 기아 오토랜드 광주, 친환경 세제 제작·전달

### 임직원 봉사단, 사회공헌 활동

기아 오토랜드 광주는 기후위기를 알리고 지역사회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에 나섰다.

기아 오토랜드 광주는 지난 13일 임직원 봉사단의 참여 아래 지역사회 이웃들에게 전달할 친환경 주방세제와 물비누 제작에 나섰다. 이날 제작된 세제와 비누는 광주시사회복지

협의회에 전달했다.

이 물품은 5개구에 위치한 사회복지시설에 전달될 예정이다.

기아 오토랜드 광주 임직원 봉사단이 만든 친환경 주방세제와 물비누는 소비자가 가져온 다회용기에 제품의 알맹이만 판매하고, 분리수거해 온 쓰레기는 모아 재활용하는 제로웨이스트샵인 알맹상점에서 원재료를 구매해 제작했다. /오지현 기자





## 인연이 있다 결혼으로 잇다

# 딱 맞는 인연을 만나고 싶을때 “여보야”



빅데이터와 최신 AI로 배우자 찾기



프리미엄 결혼 플랫폼 여보야 노블레스



결혼부터 출산까지 여보야가 적극 지원해드립니다

“여보야”는 새롭고 합리적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새로운 결혼문화를 창조하기위해 제작된 결혼 전문 플랫폼입니다.

**가장 합리적인 결혼중개 서비스, 여보야**

- ✓ 국내 결혼중개 서비스 중 **최저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 남성회원은 **2~3만원** 정도의 비용으로도 성혼이 가능합니다.
- ✓ 여성회원은 **무료**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고객센터 1522-3379**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773 세정아울렛 4층

**이제 “여보야”에서 인연을 만나보세요**

다운로드하기 

App Store에서 다운로드하기 

1 